

박서준 “연기하며 스스로 소신 돌아보게 돼” 김다미 “어디로 튈지 모르는게 조이서 매력”

JTBC '이태원 클라쓰' 인기몰이

“소신을 지켜나가는 박세로이의 삶에 자극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조그만 자극이라도 된다면 이 드라마에 참여한 의미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 세로이의 소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닐슨코리아 기준)에서 시작해 14.76%까지 시청률이 '강충' 뛰어오르며 화제몰이를 하는 JTBC 금토극 '이태원 클라쓰'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작 같은 소신을 지닌 매력적인 주인공 박세로이를 연기하는 배우 박서준(32)은 지난달 28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이답게 각오를 다졌다.

그는 “세로이를 만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갖게 된다”면서 “일주일에 두시간 남짓 되는 시간에 '이태원 클라쓰'를 선택해주는 시청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드라마는 모든 인물의 성장이 담겨있는 드라마”라며 “이 성장을 어떻게 납득 가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나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박서준은 ‘소신에 대가가 없는, 제 삶의 주체가 저인 게 당연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박세로이의 대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면서 “인생 자체, 소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게 되고 어떤 고집은 좀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세로이를 통해 저 역시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극중 세로이의 짧은 머리와 옷 등 박서준의 ‘세로이 스타일’이 10대와 20대 사

코로나19 때문에

‘시청률 10%가 넘으면

포차를 열겠다’는 공약

지키지 못해 아쉬워

이에서 유행이 된 데 대해서는 “생각보다 정말 손이 많이 간다.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라며 웃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시청률 10%가 넘으면 포차를 열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프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항상 이겨냈던 게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이서 역의 김다미(25)는 인기 비결로 “인물마다 서사가 많이 나오고, 한 명 한 명마다 입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다. 그 인물들을 보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작에서 소시오패스면서 박세로이와 사랑에 빠지는 역할에 대해 그는 “감독님과 원작과는 좀 다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조이서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소시오패스인데 왜 감정을 표현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박세로이한테만큼은 자신을 ‘올인’ 할 줄 아는 캐릭터로 잡고 연기했다”고 했다.

권나라(29) 또한 “수아 캐릭터는 원작과 차이가 있다. 선과 악이라고 구분 짓기보다는, 드라마에서 수아의 아픈 유년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 만큼 그것을 최대한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JTBC '이태원 클라쓰'의 세 배우 김다미(왼쪽부터), 박서준, 권나라. /연합뉴스

설명했다. 유재명(47)은 앞으로의 관련 포인트에 대해 “장가와 단밤의 대립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가 중요한데, 무릎을 치면서 대본을 봤다. 충분히 기대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토요일 밤 11시 JTBC 방송. /연합뉴스

‘슈가맨’ 돌아온 씨야, 13년전 노래 차트 역주행



멜론 '톱 100'에 4곡 진입

최근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에 출연한 여성 3인조 그룹 씨야(사진·이보람·남규리·김연지)의 과거 히트곡이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역주행'해 눈길을 끈다.

씨야의 2007년 곡 '사랑의 인사'는 2일 오전 9시 기준 멜론 실시간 차트 28위에 랭크됐다. 지니와 플로에서는 각각 22위와 24위를 기록했고 소리바다 7위, 벅스 11위 등 최상위권에 오른 차트도 있다.

멜론에서는 2006년 곡 '미친 사랑의 노래'와 '구두', '사랑의 인사' 등을 잇달아 히트시킨 인기 여성 그룹고 역시 2006년에 발표한 데뷔곡 '여인의 향기'가 83위에 드는 등 '톱 100' 안에 4곡이나 진입했다.

씨야 세 멤버는 지난달 21일 '슈가맨'에 완전체로 출연해 '사랑의 인사' 등 히트곡 무대를 약 10년 만에 재연했다. 과

거냥규리 탈퇴 당시 서로가 겪은 아픔과 멤버들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도 화제가 됐다.

당시 방송에서 선보인 곡들은 이후 차트에 재진입해 1주일 이상 머무르고 있다. 13~14년 전 노래가 방송을 통해 재조명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씨야 멤버 이보람은 최근 자신의 SNS에 “차트인 4곡이러니 이 감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라며 박찬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2006년 데뷔한 씨야는 '여인의 향기', '미친 사랑의 노래', '구두', '사랑의 인사' 등을 잇달아 히트시킨 인기 여성 그룹으로 2011년 해체했다. 방송에서 '슈가송'으로 선보인 정규 2집 타이틀곡 '사랑의 인사'는 열가의 동명 곡래시 선율을 샘플링한 노래로, 발매 당시에도 장기간 정상을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KBS 월화극 재개...이신영·신승호·김소혜의 '계약우정'

지난해 11월 종영한 '조선코로 녹두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KBS 2TV 월화드라마가 다음 달 '계약우정'으로 재개된다.

'계약우정' 측은 배우 이신영, 신승호, 김소혜가 주연으로 캐스팅됐다고 2일 밝혔다.

총 4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존재감 없던 평범한 고등학생 박찬홍이 우연히 쓴 시 한 편 때문에 전설의 주막이라 불리는 허돈혁과 '계약우정'을 맺게 되면서 벌어지는



배우 이신영·신승호·김소혜 (왼쪽부터)

일을 담았다. 배우 이신영은 주인공 '박찬홍'을, 신승호는 '허돈혁'을, 김소혜는 전설의 첫사랑 '엄세운'을 맡았다. 다음 달 6일 밤 10시 첫 방송.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SBS/KBC
00 KBS 뉴스광장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35 KBS 뉴스광장 50 인강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3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MBC 뉴스특보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고립낙원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생생정보 스페셜 45 육탄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0 빠샤 메카DS 50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내고향 전파 스페셜 55 특목 보형설계(재)
00 시사기획 창(재) 코로나19 일상을 격리하다 55 UHD 숨터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00 뉴스브리핑
00 다큐세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두 번은 없다(재)		00 정재영의 이슈in 55 닥터 365
00 특집 KBS 뉴스 5	00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00 뉴스7 광주전남 40 특별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최강 1교시(재)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00 특집 KBS 뉴스 9 30 KBS 뉴스 9 45 특집 KBS 뉴스 9		50 끼리끼리 1~2부 스페셜		40 아무도 모른다
00 공사창립특집 다큐 인사이트 KBS UHD 대기화 23.5 제1편 55 더 라이브	00 고립낙원			
35 UHD 숨터 40 바다 건너 사랑(재)	00 영화가 좋다(재)	10 PD수첩		00 불타는 청춘
3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40 인강극장 스페셜(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KBS 재난방송센터(재) 45 KBS 중계(재)	05 전자적 참견시점 1~2부		20 나이트 라인 50 내모세모(재)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10 건축탐구 - 집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00 EBS 다큐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30 레전드 히어로-삼국전
08:00 당동당 유치원	14:45 물랑	20:00 마틸다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언젠가는 꼭 한번, 파나마 코스타리카 -정글에서 사는 법 엠베라족>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30 한국기행
09:30 원더볼즈	15:55 엄마 까투리(재)	<찾으러 가, 봄 2부-다시, 봄 지리산>
09:40 야옹명명 귀여워2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00 특집 부모특강-0.1%의 비밀	16:25 페파 피그(재)	<생전 2부-최후의 생존, 너구리>
10:30 한국기행	16:40 당동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2:45 건축탐구 - 집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일(음 2월 9일 乙巳)

<p>36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재채하는 것이 알차다. 48년생 마주 보고 대화하면 풀 수 있다. 60년생 주머니 받거나 하며 박자가 잘 맞았다. 72년생 현 상태에서 바로 잡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84년생 당해 문제의 여건이 충족되어 가는 국면이다. 96년생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불리해진다. 행운의 숫자 : 19, 58</p>	<p>42년생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단계에 와 있다. 54년생 한꺼번에 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66년생 길함이 생기는 근원적인 계기가 마련 될 것 이니라. 78년생 행하면 능히 감당하리라. 90년생 현안이 쉽게 처리 되는 장면이다. 02년생 참으로 어려울 때 우연히 협조자가 나타나서 물꼬를 트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03, 81</p>
<p>37년생 겁쟁을 무시하지 말고 저변을 돌아보는 것이 기반을 튼튼히 하리라. 49년생 객관적 실상에 주목하여야 한다. 61년생 주변 환경이나 조건에 순응하는 편이 낫다. 73년생 머뭇거리다가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85년생 중지를 모아서 대처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97년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7, 50</p>	<p>31년생 형편대로 도모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법이다. 43년생 서로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동 작업은 가능하리라. 55년생 혼자서 임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67년생 확신이 산다면 재지 말고 즉시 추진하라. 79년생 하등에 우러랄 바가 아니다. 91년생 획기적인 발전의 발판을 조성하게 될 것이 기대해 볼만하다. 행운의 숫자 : 45, 78</p>
<p>38년생 지나치다면 미달할만 못 하느니라. 50년생 임의적인 예단은 소모적일 뿐이다. 62년생 과거에 알고 있었던 바대로 인식한다면 작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74년생 성실한 이행은 성취의 길목으로 이끌기에 손색이 없다. 86년생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98년생 진행 방향으로부터 장애 요인이 드러난다. 행운의 숫자 : 75, 77</p>	<p>32년생 파격적인 방향으로의 선회가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44년생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겠다. 56년생 차분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68년생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행해야 하느니라. 80년생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92년생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가가스로 해결 된다. 행운의 숫자 : 20, 85</p>
<p>39년생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1년생 집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으리라. 63년생 불합리하다. 75년생 절제가 꼭 필요하다. 87년생 정후를 무시한다면 사후에 발생하는 현상을 수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99년생 현명한 판단이 잠재적 생산성을 강화시킨다. 행운의 숫자 : 34, 91</p>	<p>33년생 배후에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자. 45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즉시 조치하는 것이 합당한 결과를 부른다. 57년생 함구하고 있어야만 효과를 보는 법이다. 69년생 정해진 일이나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81년생 궤를 같이 하지 않으려는 요소가 보인다. 93년생 상대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3, 66</p>
<p>40년생 귀찮을 것이다. 52년생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차 호전 되리라. 64년생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 동안 머뭇거리게 된다. 76년생 충분한 여유를 뒤야만 변화무쌍한 국량에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88년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니라. 00년생 진중하다보면 점진적인 발전을 이룰 것임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49, 53</p>	<p>34년생 아직은 현저함이 보이지 않는다. 46년생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58년생 규모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0년생 내부적 행동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82년생 치밀한 기획이 선행되어야 목격하는 바를 이루리라. 94년생 밤상한다면 목표에 거의 다 이르러서 놓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2, 79</p>
<p>41년생 치밀하게 원인을 분석을 하자. 53년생 인정받을 수도 있는 기회이다. 65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세기이니라. 77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오류를 범하기에 충분하다. 89년생 폐단은 가끔씩 빨리 개선해야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01년생 한계를 넘어서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드러난다. 행운의 숫자 : 13, 57</p>	<p>35년생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다. 47년생 전반적인 불길이가 예상된다. 59년생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접하리라. 71년생 한 번 선택한다면 돌이킬 수 없다. 83년생 배려에 힘입어 풍성함을 누리는 운로이다. 95년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00, 65</p>